

조형예술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발상에 관한 연구  
-20세기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조진숙<sup>†</sup>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A Study on Fashion Design Applied with the Plastic Arts  
-Focused on Mondrian's Geometrical Abstract Painting Shown in  
the Twenty Century's Fashion Design-

Jean-Suk Cho<sup>†</sup>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2004. 5. 25. 접수 : 2004. 8. 6. 채택)

Abstract

The plastic arts is used when designers draw inspirations to create fashion design. The author referred to fashion magazines for designing ideas of Mondrian's geometrical abstract painting in practical applications used by designers in Paris, Italy, London and New York during the 10-year period(1991~2000). The collections of data were analyzed as following:

◇ Fashion Designing Idea

1. Matching Idea

The art is reproduced in the design as how it is with no transformation.

First, the painting's complete figure is reproduced on the entire or parts of clothing. Second, the painting's partial figure is reproduced on the entire or parts of clothing.

2. Contrasting Ideas

The composition elements in Mondrian's geometrical abstract painting, for example, structures of shapes,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and different colors are applied in the design.

First, one particular shape in painting is transformed into different shape of square, circle or triangle and reproduced in designing. Second, one particular shape in painting is disassembled and then reshaped into different form in reproduction. Third, additional lines are put in to create different look from the original painting. Forth, existing lines are extended over the boundary to create different look from the original painting. Fifth, achromatic colors: black and white, and three basic colors: red, blue and yellow in the original painting are modified into different shades or color scheme is increased in broad range.

*Key words: reproduction of art(원형의 재현), change in structure(구도변경), disassemble of structure(구도해체), change in color(색상변경), change in dividing lines(분할선 변경), extension of dividing lines(분할선 연장).*

<sup>†</sup> 교신저자 E-mail : jeansc@hanmail.net

## I. 서론

조형예술은 의상디자인 창작에 있어서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분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영감을 조형예술에서 찾는다고 볼 수 있는데 20세기 초부터 뽀와레(Paul Poiret)를 선두로 하여 디자이너들이 예술작품에서 영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과 공동작업을 해왔다. 또한 예술가들의 의상디자인의 직접적 관여는 의상을 예술의 위치에 놓는데 한 몫을 담당하였다. 특히 1913년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가 자신이 디자인한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Robe Simultanees(여러 면의 색들이 마치 하나의 기하학적인 작품처럼 몸을 감싸고 있는 형태의 드레스)를 발표함으로써 조형예술을 오프 꾸뛰르(Haute Couture) 영역에 침투시켰다.<sup>1)</sup> 그 이후 그녀는 자신의 예술세계인 색과 기하학적 무늬의 회화적 연구를 천과 옷에 직접 적용시키는 창작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예술작품은 의상디자인에 영감 혹은 영향을 줌으로써 상업적 의상으로 재생산된다. 즉, 조형예술과 의상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의상은 예술작품의 직·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그 가치가 부가된다. 예술의 조형적 특징과 패션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형예술과 연관된 의상연구는 조형예술이 의상의 형태나 색상, 소재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패션이 개성화, 다양화에 대한 욕구에 의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형예술이 의상의 조형적 측면에 미친 영향보다는 조형예술을 모티브로 어떻게 의상디자인을 발상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이브 생 로랑(Y. S. Laurent)에 의해 1965~66년 겨울, 파리패션에 발표된 이래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의상에 도입, 응용되어온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빨강, 노랑, 파랑의 콤포지션:1921)을 모티브로 한 의상디자인 발상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여러 문헌을 참고로 하여 몬드리안의 추상세계와 작품들을 살펴보고, 최근 10년

간(1991년에서 2000년)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 등에서 발표한 유명디자이너의 작품이 실려있는 패션 잡지, Book Moda(이태리:publifashion), Collections(일본:Gap Press)와 Collezioni(이태리:Zanfi Editori) 등을 통하여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선정과정에서 정확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상학 석사과정을 마친 전문가 3인이 안면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을 모티브로 한 의상디자인 발상법을 밝혀내어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의상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감각을 전달해 나가야 하는 의상디자이너들에게 의상의 예술적 측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다양한 의상디자인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조형예술과 관련된 선행연구

조형예술은 현대패션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디자인의 창의성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것은 순수 예술과 의상디자인에서 표현되는 조형요소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의상은 인간의 내적인 미의식을 표현하는 예술의 한 분야로서 예술이 창조되는 시대의 사회적 욕구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형예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국내 학회지를<sup>2)</sup> 통하여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조형예술의 조형적 특성이 의상의 형태, 색채, 소재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감각산업으로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형예술을 모티브로 의상디자인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발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1) G. I. Soyer, *Jean-Gabriel Domerque: l'art et la mode* (Paris: sous le Vent, 1984), p. 110.

2) 한국의류학회, 복식학회, 복식문화학회.

〈표 1〉 조형예술과 관련된 선행연구

구성요소	제 목	저 자	년 도	학회지명
형태	현대복식의 초현실주의적 조형성	형성희, 은영자	1994. 12	복식문화연구
	초현실주의 복식 양식에 관한 연구	곽미영, 정홍숙	1995	복식
	의상디자인의 형태와 조형예술과의 관계	이인성	1997. 11	한국의류학회지
	20세기 후반 패션에 표현된 예술양식의 기제미 분석 연구	이효진	1998. 09	복식문화연구
	현대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양식에 관한 연구	이경화, 한명숙	1999. 03	복식문화연구
	현대복식에 표현된 아방가르드의 유형별 특성 연구	엄소희, 김문숙	2000. 04	복식문화연구
소재	현대의상의 직물문양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의 무의식 개념에 관한 연구	이효진	1994. 05	복식
	현대의상에 표현된 Opt Art의 조형성	임영자, 이현숙	1995	복식
	포스트모더니즘과 텍스타일 디자인을 위한 연구	이주현	1996. 01	한국의류학회지
색채	아르데코시대를 중심으로 한 복식의 색채이미지 연구	김영인, 이윤주	1994. 05	복식
	들로네의 직물디자인에 나타난 리듬과 색채 연구	정혜정	2000. 09	복식
	마티스회화의 색채 자율성이 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	이은경	2001. 08	복식
형태 + 소재	미니멀리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변지연, 이순홍	1996	복식문화연구
	복식에 표현된 큐비즘에 관한 연구	정연자	1998. 07	복식
	복식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주애, 허정란	1998	복식문화연구
	현대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김진주, 권미정, 이순자	1999. 08	복식문화연구
	국내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최해주, 정영선	2001. 11	복식
형태 + 소개 + 색채	현대의상에 표현된 인상주의 회화양식	이효진, 정홍숙	1994. 02	한국의류학회지
	20세기말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표현주의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이효진	1998. 09	복식
	넵피스 디자인이 현대패션에 미친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임연자, 한윤숙	2001. 01	복식

2. 의상디자인 발상

발상이란 일순간에 떠오르는 생각, 즉 인스피레이션(영감)을 뜻하며 착상, 고안이라고도 한다. 디자인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는 곧 인스피레이션을 통해 발생되는 것이다. 의상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창조적 발상이며, 특히 현대 디자인에서는 풍부한 아이디어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이디어는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생활 속의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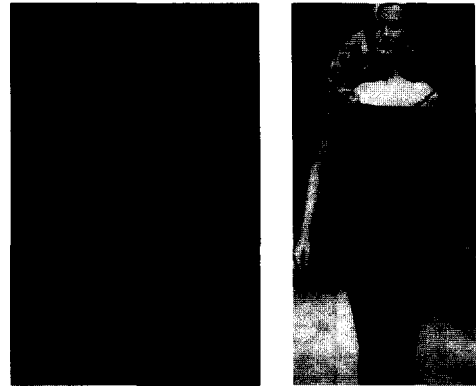
것들이 창조의 근원이 되며 발상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 어떠한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생각하여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의 발상을 소재나 형태를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자유로운 발상으로부터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sup>3)</sup> 디자인 발상 방법에는 유사발상, 반대발상, 형태 결합법, 수정법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발상방법을 통해 풍부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

3) 이호정, 복식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1995), pp. 268-270.

다.<sup>4)</sup>

**1) 유사발상**

유사발상이란 어떤 것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유사하게 표현해 내는 발상방법이다. 유사발상의 대상은 자연물, 인공물 등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자연적 형태인 구름, 달, 산, 물고기, 꽃, 나무, 조개 등이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가구, 장식품 등 그리고 예술작품인 회화나 조각, 과거의 의상이나 각 나라의 특징을 나타내는 민속복, 유니폼으로서의 군복, 수녀복, 운동복 등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감을 주는 주체가 되어 구체적인 의복의 형태, 색상, 소재를 통해 그 이미지가 표현될 수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떤 것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의상에 옮겨 실루엣과 디테일, 소재, 색상 등의 구체적인 요소로 그 느낌을 유사하게 표현해 내는 것이 유사발상이다.



<그림 1> 유사발상(Trussardi).

태, 소재, 색상의 용도나 위치, 형태, 이미지에 있어서 다양한 반대발상을 할 수 있다. 반대발상은 다양화와 유니크함이 환영받는 최근 패션의 추세와 부합하는 좋은 발상방법으로 발상의 재미와 독특함을 살릴 수 있다.

**2) 반대발상**

반대발상은 어떤 사물을 반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전혀 상반되는 형태나 성질의 것을 관련지어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발상방법이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용도나 위치, 형태, 이미지 등의 반대발상을 살펴보면 이처럼 모든 상황에는 반대의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복의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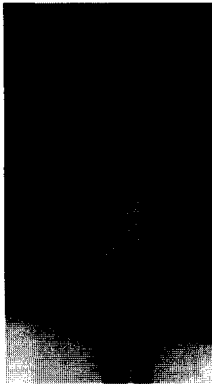
**3) 형태 결합법**

형태 결합법은 의상의 어느 한 형태적 요소를 다른 종류의 형태적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발상해 내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포켓과 가방 같은 다른 종류의 장식적 요소와의 결합도 즐겨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형태 결합에 의한 디자인은 스타킹과 팬티의 결합인 팬티스타킹, 그리고 상의와의 결합인 오버롤(over-roll) 등이다.

<표 2> 반대발상

용도, 위치	형 태	이미지
남성용 ↔ 여성용	둥근 것 ↔ 사각	건건 ↔ 퇴폐
앞 ↔ 뒤	큰 것 ↔ 작은 것	고상 ↔ 천하다
속 ↔ 겉	긴 것 ↔ 짧은 것	현실 ↔ 비현실
위 ↔ 아래	넓은 것 ↔ 좁은 것	규칙적 ↔ 불규칙
오른쪽 ↔ 왼쪽	하드 ↔ 소프트	국제적 ↔ 민족적
비싼 것 ↔ 싼 것	은폐 ↔ 노출	과거 ↔ 미래
	구성 ↔ 미구성	
	평면 ↔ 입체	
	투명 ↔ 불투명	

4) 조진숙, *패션디자인은 논리다* (서울: 패션 인사이트, 2000), p. 75.



<그림 2> 반대발상.  
(Jean Paul Gaultier)



<그림 3> 형태결합법.  
(Raniero Gattoni)



<그림 4> 수정법. (Jean Paul Gaultier)

4) 수정법

이 방법은 옷의 디자인 요소를 체크하면서 개선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태리 디자이너 마리우치아 만데리(Maliuccia Mandeli)는 교육자였지만 패션에 뜻을 두고 혼자서 수업하였다. 그는 다른 디자이너들의 의상을 구입해서 너절한 장식물을 떼어내기도 하고 소매를 고치거나 실루엣을 바꾸면서 스스로 의상을 연구하였다.<sup>5)</sup> 이처럼 기존의 의상을 가지고 떼어내거나 추가하고 변경하는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즉, 옷의 형태, 소재, 색상 등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각각의 디자인 요소들에 대한 삭제, 추가, 변경,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발상해 나가는 방법이 수정법이다.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깨부분이 노출된 재킷은 삭제에 의한 디자인이다.

3. 몬드리안의 추상세계

추상화란 사물의 사실적 재현이 아니라 순수한 점, 선, 면, 색채에 의한 표현을 목표로 한 그림을 말한다. 추상예술은 과거 원시시대 유물에서 발견되는 각종 문양과 인디언 예술의 기하학적 도형, 아프리카 예술의 화려한 장식과 이슬람교의 정교한 기하학적 장식, 그리고 고대 중국 청동기 문양과 우리나라의 고대 토기와 기와에 나타나 있는 기하학적 도형과 상징적 기호들은 추상예술의 원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의 유물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문양이 주술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띤 수단에 의한 표현이었다면 현대의 추상회화는 회화 그 자체에 목적을 둬으로써 그림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추상예술운동은 191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각자 자신의 내적 필연성에 따라 나름대로 표현하는데 그 방법은 그야말로 자율적이고 다양하다. 그러나 표현적 측면에서 크게 두 개의 경향이 생기는데, 최소한의 형태질서를 선과 색의 비례로 엄격하게 표현한 몬드리안의 냉정하고 차가운 추상과 자신의 강한 내적 충동을 음악적인 선과 색으로 표현한 칸딘스키의 격렬하고 뜨거운 추상이다.<sup>6)</sup>

1) 몬드리안의 초기 작품세계(상징주의와 입체주의)

몬드리안은 네델란드 중심부인 아메르스포트(Amersfort)에서 태어나 전통적인 그림수업 과정을 거쳤다. 1890~1910년까지 몬드리안의 초기 작품세계는 인상주의와 야수주의 표현주의, 상징주의들과 자유로운 실험을 벌여온 시기이다.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나무를 주제로 한 몬드리안의 나무 연작 초기에 그려진 1908년의 「빨간 나무」는 자연의 본질, 구도, 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작품의 색채 범위는 빨강과 파랑의 대조로 축소되고 있으며 나무의 3차원적 형태가 2차원적인 호형언어로 발전되어 가는 입체파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5) 가재창, 패션디자인 발상트레이닝 (서울: 도서출판 정은, 1993), p. 40.

6) 박갑영,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 (서울: 도서출판 두리미디어, 2002), p. 209.



〈그림 5〉 빨간 나무.



〈그림 6〉 꽃피는 사과 나무.

자연에서 발견한 순수한 색과 엄격한 형태의 조형성을 볼 수 있다. 1909년 신지학회에 가입한 몬드리안은 신지학의 신플라톤적 관념을 통해 우주와 자연의 신비, 인간 존재의 신비에 대한 해결을 찾으려고 했다. 신지학이란 그리스어의 신(神)과 지혜로 이루어진 말로 신비적 체험이나 특별한 계시에 의한 철학적, 종교적 사상의 총칭으로<sup>7)</sup> 일종의 산비주의적 사상인데 그것은 삼라만상 속 깊이 숨어있는 불가사이한 비밀을 해명하기 위해 신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으로서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적관찰이나 분석에 의하지 않고 고차원적 감각이라 할 직관에 의해 신의 계시를 얻어 신을 정면으로 보는 것이다.<sup>8)</sup> 40세가 넘은 1912년, 몬드리안은 파리를 방문하여 입체주의 그림을 접한 후 새로운 조형의 가능성을 공감하며 급격한 양식 변화를 보인다.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련의 〈나무〉연작인 「꽃피는 사과나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점차적으로 단순한 과정을 거쳐 도달하는 기하학적 조형세계가 확실하게 드러난다.<sup>9)</sup>

## 2) 몬드리안의 중기 작품세계(신 조형주의와 데-스틸)

1917년부터 이후 그는 더 이상 자연의 우연적인 형태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으며 단순화, 보편화를 통

한 자연을 대립관계인 수평, 수직만으로 표현하였다. 몬드리안의 작품에 나타나는 수평, 수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신지학의 영향으로 인한 이원성으로 좁혀진다. 즉, 수평과 수직에 대한 사상체계는 수직=남성=정신적 요소=동적=진보, 수평=여성=물질적 요소=정적=보존이라고 하는 이원 방정식이다. 이러한 이원적 원리는 전 우주에 내재된 보편적 상징의 표현이며 대립적 긴장의 관계이다. 여기서 여성적 요소와 남성적 요소는 서로 대립하면서도 합일체가 되기 위해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또한 몬드리안은 예술가는 자연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이원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예술작품은 자연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0)</sup> 그가 자연에서 출발하여 순수 조형요소로서의 선, 형, 색, 면 만을 남겨놓는 기하학적 작품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1916년 실증적 신비주의 또는 조형수학<sup>11)</sup>의 체계를 다듬었던 철학자이자 신지학자인 쉰마크스(M. H. J. Schoenmaekers)와의 만남과 1917년부터 1931년까지 활발한 새력으로 지속되어온 데-스틸(De-Stijl) 운동, 그리고 그의 이론을 체계화시킨 신 조형주의 탄생에 있다. 쉰마크스의 “아무리 영원하다해도 그것은 단지 변형일 뿐 자연은 항상 규칙성을 가지고 기본적인 기능을 행하고 있으며 그 절대적인 규칙성은 즉, 조형적인 규칙성이다라고 말한

7) 동아원색 세계백과 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7), p.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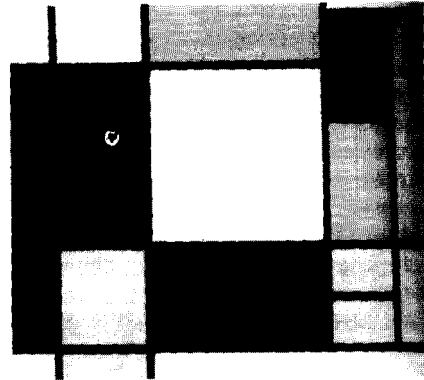
8) 오광수, 추상주의 구성주의 (서울: 신도출판사, 1981), p. 16.

9) 전영환,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회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5), pp 26-34.

10) R. P. Welsh and J. M. Joosten, *Two Mondrian sketch book: 1912-1914*, (Amsterdam: Meulenhoff International nv., 1969), pp. 16-22.

11) 조형수학: 창조자의 관점에서 진정한 방법론적 사고를 의미한다. Harbert Read, 김윤수 역, *도상과 사상*, (서울: 열화당, 1982), p. 197.

문장은 몬드리안의 신 조형주의 이론과 같은 것이다.<sup>12)</sup> 데-스틸과 신조형주의 운동은 3명의 화가 몬드리안과 반 데스부르크, 건축가 게리트 리치벨드(Gerrit Rietveld) 외에 다수의 화가가 참가한 운동으로 수평·수직선과 3원색의 원리를 존중하였고 단순히 회화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조각, 건축, 디자인 등 각 분야에서 신조형주의의 원리를 넓히려는 운동으로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유럽예술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신조형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살펴보면 첫째, 조형적인 수단은 3원색과 3무채색으로 된 평면, 혹은 사각형이어야 한다. 둘째, 조형수단은 등가성이 필요하다. 크기와 색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 평형상태란 일반적으로 무채색 혹은 빈 공간의 큰 평면과 색채를 가진 혹은 재질도로 된 작은 평면에 의해 이루어진다. 셋째, 조형수단에 있어서의 대립적인 이원성은 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넷째, 계속적인 평형상태는 대립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또한 대립하고 있는 직선에 의해서 표현된다. 다섯째, 조형수단을 중립시키고 무효로 만드는 평형은 조형수단들이 그 안에 위치하고 생생한 리듬의 근원이 되는 비례의 관계들에 의해 형성된다. 여섯째, 모든 대칭은 배제될 것이다.<sup>13)</sup> 그의 이론처럼 본질적인 것, 즉 리얼리티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화, 보편화를 추구하고자 한 몬드리안은 "구성에서, 우리는 수직의 막대기들과 수평의 막대기들, 그것들의 규칙적인 조합과 불규칙적인 조합, 대칭적인 무리와 산만하게 흩어진 무리들, 작은 단위의 특성과 그것들이 합쳐진 전체의 특성 등 대비되는 것들의 신선한 상호작용과 수직단위들과 수평단위들이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복합성을 지니지만 그것은 신비롭고도 매력적인 통일체<sup>14)</sup>를 이룬다"고 하였다. 1919년 이후 파리로 이주한 몬드리안은 급속적이며 고립된 생활로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 조형주의에 기초한 수평, 수직선과 3원색 및 이것과 대립하는 3무채색에 의해 만들어진 조화로운 구성인 '비대칭적인 것 속에 균형의 원리'로써 1920년대와 30년대 그의



<그림 7> 빨강, 노랑, 파랑, 회색의 폼포지션.

작품에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1919년부터 1938년까지 20년간 파리에서 작품활동을 하였던 몬드리안은 이기간 동안 선과 색채와의 순수한 관계 즉 공간 구성요소의 관계만이 순수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신 조형주의 원칙과 함께 변형시키고 단순화시키며 완성하게 되었다.

### 3) 몬드리안의 후기 작품세계(순수추상의 세계)

2차대전의 위험을 느낀 몬드리안은 1938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의 휘황찬란한 불빛, 마천루, 재즈, 도시의 활발함 속에서 리듬을 강조함으로써 40년대 이후 그의 그림은 20년대와 30년대의 단순하고 엄격한 기하학적 형태의 연장이 아닌 수평, 수직선과 3원색, 3무채색의 기본적인 요소를 그대로 간직한 채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더욱 복잡한 구도와 경쾌한 리듬을 드러내는 그의 최고의 역작들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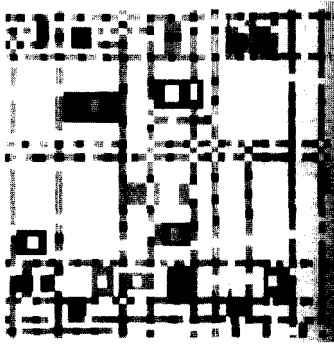
이러한 리듬과 브로드웨이의 활력 등의 현대적 감각은 60년대 새로운 추상의 양식과 형태로 발전하면서 시각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한 옵티컬 아트(Optical Art)에 의해 색채 대비와 구성들로 나타나게 되었다.<sup>15)</sup> 몬드리안은 진보라는 개념으로 일생동안 일관성 있게 진행해온 화가로서 선, 색채, 경쾌한 리듬과 기하학적 구조, 수평·수직선, 격자무늬 등은

12) Frank Elgar, *Mondrian N.Y.* (N.Y.: Preager, 1968), p. 105.

13) 정병관 외, *현대미술의 동향* (서울: 미진사, 1987), p. 170.

14) 마이어 샤피로, *현대미술사론*, 김윤수, 방대원 역 (서울: 까치글방, 1984), p. 346.

15) H. H. 애너슨, *현대미술의 역사* (서울, 인터내셔널 아트디자인, 1991), p. 539.



〈그림 8〉 브로드웨이.

그의 기하학적 조형원칙이라 할 수 있다.

### Ⅲ. 20세기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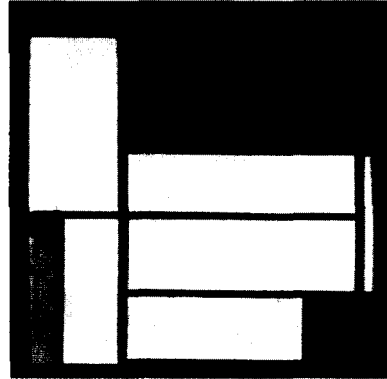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을 의상에 응용한 디자인 발상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1991년~2000년)에 걸쳐 해외 유명잡지 100여권을 통해 82벌의 작품을 수집한 후, 이 작품을 중심으로 의상 디자인 발상법을 분석해 보았다.

#### 1. 몬드리안 기하추상회화 작품

디자인 모티브로 가장 많이 활용된 몬드리안의 작품은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빨강, 파랑, 노랑의 콤포지션이었다.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색은 앞으로 나아가고 다른 색은 뒤로 물러나는 듯이 보인다. 평면적인 회화에 있어서도 언제나 피할 수 없는 입체적인 성질이 내재한다. 또한 색이 빨강, 노랑, 파랑의 3원색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 자체에 어떤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즉, 빨강은 따뜻하고, 노랑은 화려하며, 파랑은 차고 슬프게 보이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 작품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각각의 크기가 다른 사각형과 수평·수직의 분할선, 그리고 빨강, 파랑, 노랑의 3원색과 검정, 흰색의 2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의상디자인 발상법

의상디자인 발상방법은 작품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는 유사발상과 작품의 원형을 반대로 생각하여



〈그림 9〉 빨강, 노랑, 파랑의 콤포지션 (1921).

변형하는 반대발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 1) 유사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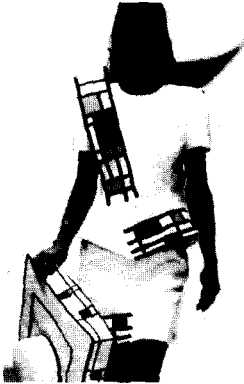
유사발상이란 어떤 것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유사하게 표현해 내는 발상방법을 말한다. 수집된 작품 속에서 몬드리안 작품의 재현은 〈그림 10〉에 나타난바와 같이 원형 그대로 의상전체에 표현되기도 하고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상의 일부분에 표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림 10〉이나 〈그림 11〉처럼 작품의 전체적 형태가 재현되기도 하지만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작품의 부분적 형태가 재현되기도 하였다. 작품의 부분적 형태가 재현될 경우, 어느 부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디자인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몬드리안의 작품을 모티브로 디자인 할 때, 유사발상은 작품의 전체적 형태를 재현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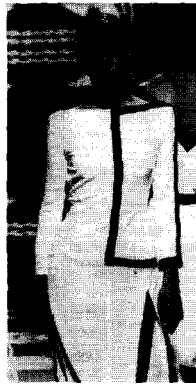


〈그림 10〉 의상전체에 표현 (Donna Karan, 1991, S/S).





〈그림 11〉 의상의 일부  
 (F.M. Bandini, 1991, S/S)



〈그림 12〉 작품의 부분  
 적 재현.  
 (Extc, 2000, S/S)



〈그림 13〉 구도변경.  
 (Jean-Louis Scherrer, 1993, S/S)



〈그림 14〉 구도해체.  
 (C. Thomass, 1993, S/S)

나 일부분을 선택하여 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발상은 의상 전체나 의상의 일부분에 표현되었다.

2) 반대발상

반대발상은 어떤 사물을 반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전혀 상반되는 형태나 성질의 것을 관련지어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발상법이다. 수집된 작품 속에서 반대발상은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의 구성요소인 사각형 구도, 수평·수직의 분할선, 색상별로 이루어졌다.

(1) 구도

몬드리안 작품의 사각형구도는 〈그림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각형 형태를 동그라미, 삼각형, 다양한 형태의 사각형, 혹은 타원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표현하거나 〈그림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각형 구도를 해체한 후 재배치하여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색상

몬드리안 작품의 검정, 흰색의 무채색과 빨강, 파랑, 노랑의 3원색은 〈그림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할선의 검정색과 바탕의 흰색을 반대로 발상하여 분할선은 흰색, 바탕색은 검정으로 하거나, 흰색과 검정의 2무채색 대신에 보라색과 베이지 등의 다른

색으로 변경하거나, 〈그림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재의 불투명과 투명의 대비를 활용하여 표현한 것도 있었다. 또한 빨강, 파랑, 노랑의 3원색은 보라, 초록, 분홍, 주황 등의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여 표현하거나, 배색의 수를 늘여서 표현하기도 하였다.

(3) 분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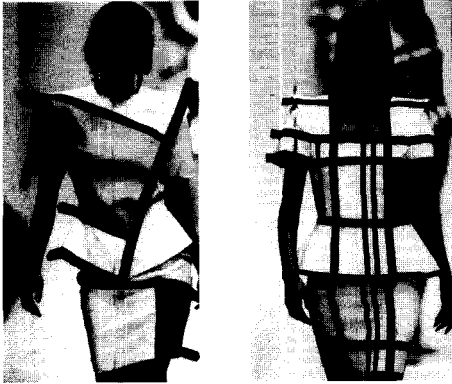
몬드리안 작품의 수평·수직 분할선은 〈그림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계선 밖으로 연장시키거나, 〈그림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크무늬처럼 여러 개의 분할선을 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색상변경.  
 (Christine Marchese, 1992, S/S)



〈그림 16〉 색상변경(투  
 명과 불투명).  
 (Takashi Okuno, 1995, S/S)



〈그림 17〉 분할선 연상. 〈그림 18〉 분할선 변.  
(F. M. Bandini, 1991, *SS*) (F. M. Bandini, 1991, *SS*)

이상과 같이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을 모티브로 디자인할 때, 반대발상은 구도 변경, 구도 해체, 색상 변경, 분할선 연장, 분할선 변경 등의 방법으로 발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각각 한가지 발상법만을 사용하거나 구도변경+색상변경, 구도해체+색상변경처럼 두 가지 발상법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사용방법에 따라 몬드리안 작품의 이미지가 강하게, 또는 약하게, 혹은 매우 희석되어서 구분이 다소 어려운 것도 있었다.

### 3) 발상 빈도

#### (1) 의복종류

몬드리안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의상디자인을 의복 종류별로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코트나 원피스처럼 상의에서 하의까지 연결된 상+하의류가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상의류가 25.6%, 하의류가 7.3%, 수영복이 4.9% 순으로 나타났다. 상+하의류와 상의류에 87.8%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주로 상+하의류와 상의류에 디자인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하의류에 있어서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피스가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드레스가 15.7%, 투피스가 15.7%, 코트가 9.8%, 원피스+가디건이 7.8% 순으로 나타났다. 상의류에 있어서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킷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블라우스가 23.8%, 스웨터가 9.5%, 가디건 세트가 4.8%, 조끼가 4.8% 순으로 나타났다. 재킷과 블라우스에 80.9%

〈표 3〉 몬드리안의 작품을 디자인한 의복종류

의복종류	작품수	%
상의류	21	25.6
하의류	6	7.3
상+하의류	51	62.2
수영복	4	4.9
합계	82	100.0

〈표 4〉 몬드리안의 작품을 디자인한 상+하의류

의복종류	작품수	%
코트	5	9.8
원피스	26	51.0
원피스+가디건	4	7.8
드레스	8	15.7
투피스	8	15.7
합계	51	100.0

〈표 5〉 몬드리안의 작품을 디자인한 상의류

의복종류	작품수	%
재킷	12	57.1
블라우스	5	23.8
스웨터	2	9.5
가디건	1	4.8
조끼	1	4.8
합계	21	100.0

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상의류에 있어서는 주로 재킷과 블라우스에 디자인됨을 알 수 있었다. 하의류에 있어서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커트가 66.7%로 바지(3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몬드리안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의상디자인은 상의에서 하의에 걸쳐 전체적으로 표현되는 상+하의류가 가장 많았다. 즉, 몬드리안 패턴을 의상의 부분적인 악센트로 활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로 활

〈표 6〉 몬드리안의 작품을 디자인한 하의류

의복종류	작품수	%
스커트	4	66.7
바지	2	33.3
합계	6	100.0

용하려는 의도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상+하 의류 중에서도 원피스가 가장 많은 것은 몬드리안의 단순한 이미지 표현에 심플한 원피스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발상 빈도

몬드리안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발상은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대발상이 72%로 유사발상(28.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반대발상이 다양하고 독특한 것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추세와 어울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유사발상은 몬드리안 작품의 전체적 형태나 부분적 형태를 재현하였는데, 작품의 부분적 재현이 21.9%로 작품의 전체적 재현(6.1%)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발상은 작품의 구성요소인 구도, 분할선, 색

〈표 7〉 몬드리안 작품을 모티브로 한 의상디자인 발상 빈도

발상법		작품수	%	
유사발상	전체	5	6.1	28.0
	부분	18	21.9	
반대발상	구도변경	13	15.9	72.0
	구도해체	5	6.1	
	색상변경	13	15.9	
	분할선 연장	2	2.4	
	분할선 변경	2	2.4	
	구도변경+색상변경	15	18.3	
	구도해체+색상변경	8	9.8	
	분할선변경+색상변경	1	1.2	
합계	82	100.0	100.0	

상별로 이루어졌는데, 구도와 관련된 디자인(구도변경, 구도해체, 구도변경+색상변경, 구도해체+색상변경)이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색상과 관련된 디자인(색상변경, 색상변경+구도해체, 색상변경+구도변경, 색상변경+분할선 변경)이 45.2%, 분할선과 관련된 디자인(분할선 변경, 분할선 연장, 분할선 변경+색상변경)이 6.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할선과 관련된 디자인은 구도나 색상과 관련된 디자인에 비해 발상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구도와 관련된 디자인의 경우, 구도변경과 관련된 디자인(구도변경, 구도변경+색상변경)이 34.2%로 구도해체와 관련된 디자인(구도해체, 구도해체+색상변경)의 15.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구도와 관련된 디자인에서 변경과 관련된 디자인이 해체와 관련된 디자인보다 더 많이 발생되었다. 또한 구도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색상 변경과 함께 두 가지 발상법을 사용한 것이 56.1%로 구도변경, 구도해체의 한가지 발상법만 사용한 것(43.9%)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도와 관련된 디자인의 전체적인 발상빈도는 구도변경+색상변경이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구도변경이 15.9%, 구도해체+색상변경이 9.8%, 구도해체가 6.1% 순으로 나타났다.

색상과 관련된 디자인의 경우, 색상변경+구도변경이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색상변경이 15.9%, 색상변경+구도해체가 9.8%, 색상변경+분할선 변경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색상은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도변경이나 구도해체와 함께 두 가지 발상법을 사용한 것이 64.9%로 색상변경의 한가지 발상법만 사용(35.1%)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할선과 관련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작품수가 매우 적어 단언할 수 없지만, 분할선 변경이 2.4%, 분할선 연장이 2.4%, 분할선 변경+색상변경이 1.2%

〈표 8〉 구도와 관련된 발상법의 사용

사용방법	작품수	%
한 종류의 발상법 사용	18	43.9
두 종류의 발상법 사용	23	56.1
합계	41	100.0

〈표 9〉 색상과 관련된 발상법의 사용

사용방법	작품수	%
한 종류의 발상법 사용	13	35.1
두 종류의 발상법 사용	24	64.9
합계	37	100.0

〈표 10〉 분할선과 관련된 발상법 사용

사용방법	작품수	%
한 종류의 발상법 사용	4	80.0
두 종류의 발상법 사용	1	20.0
합계	5	100.0

순으로 나타났다. 분할선은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할선 변경이나 분할선 연장의 한가지 방법만 사용한 것이 80.0%로 색상 변경과 함께 두 가지 발상법을 사용한 것(20.0%)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분할선 연장과 분할선 변경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발상빈도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몬드리안 작품의 부분적 재현이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구도변경+색상변경이 18.3%, 구도변경이 15.9%, 색상변경이 15.9%, 구도해체+색상변경이 9.8%, 구도해체가 6.1%, 작품의 전체적 재현이 6.1%, 분할선 연장이 2.4%, 분할선 변경이 2.4%, 분할선 변경+색상변경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몬드리안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의상디자인은 반대발상이 유사발상보다 많이 나타났고, 유사발상에서는 작품의 부분적 형태의 재현이 전체적 형태의 재현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추세와 어울리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반대발상은 구도와 관련된 디자인이 가장 많이 발상되었고, 다음은 색상과 관련된 디자인이었으며, 분할선과 관련된 디자인이 가장 적게 발상되었다. 구도와 관련된 디자인은 구도 변경과 관련된 디자인이 구도 해체와 관련된 디자인보다 많이 발상되었다. 또한 구도변경과 구도해체는 각각 한가지 발상법만 사용한 것보다는 색상변경과 함께 두 가지 발상법을 사용한 것이 더 많이 나타났다. 색상변경은 색상변경 한 가지 발상법보다는 구도변경

이나 구도해체 등과 함께 두 가지 발상법을 사용한 것이 더 많이 나타났다. 분할선과 관련된 디자인은 전체 작품 속에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논하기는 어려우나 분할선 변경과 관련된 디자인이 분할선 연장과 관련된 디자인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 IV. 결 론

조형예술을 모티브로 하여 의상디자인을 할 경우, 그 발상법을 연구하고자 파리, 이태리, 런던, 뉴욕 등에서 발표된 유명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실려있는 최근 10년 간(1991년~2000년)의 해외 유명잡지를 통하여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을 수집,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발상법

#### 1) 유사발상

유사발상은 작품의 원형 그대로 의상에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1) 작품의 전체적 형태 재현: 작품의 전체적 형태가 의상의 전체나 부분에 표현되었다.

(2) 작품의 부분적 형태 재현: 작품의 한 부분이 의상의 전체나 부분에 표현되었다. 작품의 부분적 형태 재현은 선택부위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 보일 수 있다.

#### 2) 반대발상

반대발상은 몬드리안 기하추상회화 작품의 구성요소 즉, 사각형구도, 수평·수직의 분할선, 색상별로 이루어졌다.

(1) 구도 변경: 사각형 구도를 다양한 형태의 사각형, 등그라미, 삼각형 등의 다른 형태로 변경하여 표현하였다.

(2) 구도 해체: 사각형 구도를 해체한 후 다시 재배치하여 표현하였다.

(3) 분할선 변경: 분할선에 체크무늬처럼 여러 개의 분할선을 넣어서 표현하였다.

(4) 분할선 연장: 분할선을 경계선 밖으로까지 연장하여 표현하였다.

(5) 색상 변경: 검정, 흰색의 무채색과 빨강, 파랑,

노랑의 3원색을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거나 배색 수를 늘려서 표현하였다.

## 2. 발상 빈도

### 1) 의복종류

몬드리안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표현된 의복종류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몬드리안 패턴은 상의와 하의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표현된 상+하의류에 가장 많이 디자인되었고, 다음은 상의류, 하의류, 수영복 순이었다.

둘째, 상+하의류 중에서는 원피스에 가장 많이 디자인되었고 다음은 드레스, 투피스, 코트, 원피스+가디건 순이었다.

셋째, 상의류 중에서는 재킷에 가장 많이 디자인되었고 다음은 블라우스, 스웨터, 가디건 세트, 조끼 순이었다.

넷째, 하의류 중에서는 바지보다 스커트에 더 많이 디자인되었다.

### 2) 발상법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을 모티브로 의상 디자인을 발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대발상이 유사발상보다 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둘째, 유사발상에서 작품의 부분적 재현이 전체적 재현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셋째, 반대발상은 구도, 색상, 분할선 중 구도와 관련된 발상법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은 색상, 분할선 순이었다.

넷째, 구도의 경우, 구도변경과 관련된 디자인이 구도해체와 관련된 디자인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다섯째, 색상의 경우, 색상만 변경한 것보다는 구도해체나 구도변경과 함께 사용한 것이 더 많이 나타났다.

여섯째, 분할선의 경우, 분할선 변경과 관련된 디자인이 분할선 연장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일곱째, 디자인 발상법의 사용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도변경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은 구도해체+색상변경, 색상변경, 구도해체, 구도변경+색상변경, 분할선 변경과 분할선 연장 순이었다.

이상과 같이 조형예술작품을 모티브로 디자인 발상을 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술작품을 재현하는 유사발상법은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양하고 독특한 디자인을 위해서는 반대발상법을 사용하여 디자인할 수 있다. 반대발상은 우선 그 작품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후, 구성요소별로 변형하여 의상디자인에 활용하며, 한가지 발상법뿐 아니라 두가지 이상의 발상법도 함께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을 발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조형예술작품은 의상디자인 창작에 영향과 영감을 주면서 여러 번의 형태 변화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창조를 맞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디자인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발상을 구상하여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이미지네이션을 창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가재창 (1993). *패션디자인 발상트레이닝*. 서울: 도서출판 정은.

박갑영 (2002).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 서울: 도서출판 두리미디어.

이호정 (1995). *복식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전영환 (1995).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회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진숙 (2000). *패션디자인은 논리다*. 서울: 패션인사이드.

오광수 (1981). *추상주의, 구성주의*. 서울: 신도출판사.

Frank Elgar (1968). *Mondrian N.Y.* N.Y.: Preager.

G.I. Soyer (1984). *Jean-Gabriel Domerque: l'art et la mode*. Paris: sous le Vent.

H.H. 애너슨(1991). *현대미술의 역사*. 서울, 인터내셔널 아트디자인.

Haarbert Read, 김윤수 역 (1982). *도상과 사상*. 서울: 열화당.

M. 샤피로, 김윤수, 방대원 역 (1984). *현대미술사론*. 서울: 까치글방.

Welsh, R. P. and Joosten, J. M. (1969) *Two Mondrian sketch book: 1912-1914*. Amsterdam: Meulenhoff International nv.